

광주 을 문화예술행사 알차고 풍성해진다

광주문화재단 '지역협력형 사업' 확정

지원금 23억...작년보다 3억원 늘고
196개 단체·개인 선정...20개 증가

지역특화거점사업 12개 단체 참여
레지던스프로그램 7개 단체 뽑혀
163건 공연·전시·출판 비용 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사업에 선정된 광
산문화예술회관 그린발레단 공연 모습.



광주 문화예술사업들이 봄을 맞아 가지
개를 켜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공모
한 2017년 '지역협력형 사업' 선정결과를
1일 발표했다. 올해는 196개 단체·개인에
약 2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단체·개인은 20개, 지원금
은 3억원이 증가하며 문화향유 기회를 더
욱 풍성하게 했다.

선정단체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올
해 문화사업을 미리 그려본다.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예산 5억
2300만원)은 매년 특색있는 행사를 선보
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는 모두 51개
단체가 신청해 열린 경쟁을 벌인 결과 12
개 단체가 참여한다.

합제아문화예술인협동조합(합제아 토
크콘서트), 가야금 병창단 현의노래(예술
의거리 속삭이는 마당), 아프리카 타악그
룹 아나포(릭소춘 낭만파티), 다락클래

식음악실(클래식음악을 통한 거점 활성화), 극단 토박이(광주민중항쟁 오월 공연
'청실홍실'), 극단 크리에이티브드라마(단
막극 페스티벌) 등이다.

총 1억8600만원이 투입되는 '문화예술
교류지원사업'은 타 시·도와의 교류를 통
해 예술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프
로그램이다. 대구, 일본, 폴란드 등 다양한
지역과 함께한다. 약 6 : 1의 경쟁률을 뚫
고 지난해보다 1개가 늘어난 7개 단체가
시민들과 만난다. 광주독립영화협회(광주
&대구영화 '영화의 미래다'), 극단청춘
(달빛 연극 프로젝트-PLAY 광대), 광주
내셔널필하모닉오케스트라(일본오케스
트라연맹 초청 한일교류음악회), 아트그
룹 소나무(아시아문화예술교류전), 광주
아카펠라협회(제2회 광주 아시아 아카펠
라 페스티벌), 글로벌메이킹아트네트워크
(한국×폴란드 : 기억을 나누다), 풍류회
죽선방(소리고을과 빛고을의 풍류류를 비

교한다) 등이다.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3억
9900만원)은 광산문화예술회관(광주여성
필하모닉오케스트라·그린발레단), 서구
문화센터(써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북구
청소년수련관(아트컴퍼니), 빛고을시민
문화관 등 4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이들을
올리지 않았던 빛고을시민문화관이 눈에
된다. (사)선율·푸른연극마을·극단 유포
씨어터가 합류하며 음악, 연극 장르가 강
화됐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창작활
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단체를 대상
으로 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2개 더 늘어난 7개 단체가 뽑
혔다. 새롭게 선정된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OverLab), 대인시장 청년예술
인단체 '지구발전소라', '미디아트레지
던스'는 결과보고전, 오픈스튜디오 등을
통해 참신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단체·개인에게 공연·전시·출판 비용
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
업'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최소 30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제공한다. 총
455건이 접수 됐으며 이중 163건이 선정
됐다. 장르별로는 미술 46건, 문학 36건,
음악 30건, 다원예술 18건, 전통예술 17
건, 연극 12건, 무용 4건으로 지난해보다
총 16건이 늘었다.

지원사업 선정결과는 재단 홈페이지
(www.gjcf.or.kr) 또는 국가문화예술지
원시스템(www.nca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단은 2일 오후 2시 집중지원사
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레지던스프
로그램지원·지역특화문화거점·문화예술
교류지원사업), 오후 4시 지역문화예술육
성지원사업 선정 단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의 062-670-74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도꼬마리의 심장'...김혜원 개인전 8일까지 갤러리 리체

한국화가 김혜원씨가 8일까지 갤러리 리체에서 '도꼬
마리의 심장'을 주제로 10년 만에 초대 개인전을 개최하
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가 봄을 맞아 기획한 한국화 시리
즈전이다.

'도꼬마리의 도깨비'의 우리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꼬마리의 歲寒(세한)' 연작을 비롯해 '고음(苦吟)', '그
리움', 'Liberty', '大栗草' 등 최근작 2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도꼬마리 등 일반 잡초를 작품에 담고 있다. 화
면을 절반으로 나눠, 금색으로 상단을 채우고 하단부는
검은색을 칠했다. 뿌리는 회색심장으로 표현했고, 심장
에서 뻗어나온 줄기는 마치 사군자처럼 간결하게 그렸다.
작품 '分-Separation'은 하나의 심장에서 나온 두갈래

줄기가 눈에 띈다. 주부와 예술가 사이에서의 고민뿐 아
니라 분단된 조국의 비극을 형상화했다.

전시 스토리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표현한 '홀'작품으로
귀결된다. 마음 속 고민과 아픔을 해소하는 눈물을 그리
며 작업과 삶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 작가는 "앞으로는 심장에 진경산수를 넣는 작업으
로 한국화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대를 졸업한 김씨는 현재 원광대 문화재보존수복
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개인전 3회, 다수 단체전에 참
여했고 한국화대전 우수상 등 전국 공모전에서 다수 수상
했다. 현재 문화재보존수복학회, 한국미협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



'分-Separation'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사랑받는 미술관,
사랑받는 그들만의 컬렉션**

- 광주·전남 26개 미술관, 문화공동체의 구심점
- 사반세기 나이에 그린 광주시립미술관
- 사랑받는 미술관들의 공통점, 매력적인 그들만의 컬렉션

남도 시간 속을 걷다①
82년의 세월이 얹은 보성여관에서
부용산의 슬픔, 태백산맥의 서사에 젖는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②
몸으로 배우는 예술교육 제공
파리 풍피두센터

노종훈의 꿈의 여행③
건축의 혁신과 예술적 품위
스페인 발렌시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광주U대회 노하우 'U어드바이저' 출간 김윤석, 배미경
나무 주판알 만드는 주판 달인 김춘열
FA '100억' 대어 기아타이거즈 외야수 최형우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3월호

광주·전남 미술관의 현주소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문학과 인생

올해로 개관 25주년을 맞은 광주시립
미술관과 내년 광양에 들어설 전남도립
미술관은 예향 남도를 견인할 대표작인
수준 높은 작품과 가치로 한국 미술사
를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월간 '예향'은 특집으로 '미술관, 예
향의 미래' 주제로 광주전남미술관 실
태와 현황을 들여다보았다. 사반세기
를 맞은 광주시립미술관의 현주소 그
리고 공립미술관의 대안 등 미술관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김용택 시인은 '섬진강 시인'으로
불린다. 그만큼 시인과 섬진강은 불가
분리다. 섬진강변 마을이 고향인
시인은 초등학교에서 38년간 학생들
을 가르치며 시를 써왔다. 최근에는
드라마 '도깨비'에 그가 엮은 필사시
집이 소개돼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았
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시인을 만나
문학과 인생에 대해 들었다.

국가어항인 장흥 회진항은 이야기
가 있는 항구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은 이곳에서 재기해 명량해전을 승리
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
근의 회진성에는 당시 전력을 재 정비
했던 수군들의 흔적이 깃들여 있다.
또한 회진은 한국 현대문학을 대표하
는 작가 이정준과 한승원의 고향이거
도 하다. 지역거점어항으로 발돋움하
고 있는 회진항을 찾아 생생한 바다
소식과 어부의 삶을 취재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물 '남도 시
간 속을 걷다'에서는 82년의 역사를
지난 벌고 '보성여관'을 찾아 태백산
맥의 서사와 근대 시간의 역사를 탐
색했다.

올해는 강진이라는 지명이 탄생하
고 전라병영성이 축성된 지 600년이
되는 해다. 또한 강진에서 18년간 유
배생활을 한 단산 정약용 선생이 '경
세유표'를 지은 지 200년이 되고, 비석
고려정자를 재현한 지 40년이 되기도
한다. '남도 美味樂'은 남도답사1번지
로 불리는 강진을 찾아 불거리와 먹물
거리, 줄길거리를 다각도로 취재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에서는 복령조
화고 명인 김영숙을 만났다. 복령은 죽
은 지 오래된 소나무 뿌리에서 기생해
자라는 버섯류로, 조상들은 이 복령가
루와 맷살가루를 넣어 만든 떡 '복령조
화고'를 즐겨먹었다. 진도로 시집과 전
라도 사람이 되면서 남도음식의 명인
이 되기까지 지나온 사연을 들었다.

이밖에 세계 대표 예술의 도시 파리
에 있는 파리풍피두센터를 찾아 소문
난 예술교육현장을 취재했고 '노종훈
의 꿈의 여행'에서는 건축의 혁신과
예술적 품위가 넘치는 스페인 발렌시
아를 소개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소나조각
안근호전시회
- 500여점 전시 -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대학 뒤 관현악관 18)

예향 초대석
**봄처럼 따뜻한
위로의 시인, 김용택**
"시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줘요"

대한민국 식품명인③
귀한 약재 '복령'과
정성으로 빚은 건강 떡
복령조화고 명인 김영숙

문화 화재
문인 배출의 든든한 터,
생오지 문예창작촌

아트 뉴스 & 리뷰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
정명화, 손영음, 신지아 트리오 광주 공연

백경남의 대중문화X파일④
소설테이너와 폴리테이너를
바라보는 시선

박성천 기자의 문화일기⑤
'한국소설이 좋아서'
50권 선정 전자서평집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⑤
문학과 궁국의
뜨거움 품은
정충 회진항

남도 美味樂
다산과 영랑시, 질트랙 타고 강진만 안팎
연탄불고기백만 각박한 등 전라도와 밤
노트엔마랑수신사당 후기문학정거장